

3/19/23

설교 제목: 이제는 값아 주리라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요엘 3 장 1-21 절

(을 3:1) 보라 그 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 때에

(을 3:2)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 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절관주** 사 66:18, 미 4:12, 사 66:16

(을 3:3)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 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절관주** 나 3:10

(을 3:4)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절관주** 겔 25:12-17

(을 3:5)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기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을 3:6)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절관주** 신 28:32, 겔 27:13

(을 3:7)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을 3:8)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절관주** 사 14:2, 사 60:14, 욥 1:15, 겔 23:42

(을 3:9)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아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절관주** 렘 6:4, 미 3:5

(을 3:10)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절관주** 속 12:8

(을 3:11)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을 3:12)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절관주** 욥 3:2

(을 3:13)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로다 **절관주** 사 63:3, 애 1:15

###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다

(을 3:14)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절관주** 을 2:10

(을 3:15)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을 3:16)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을 3:17)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을 3:18) ○그 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 나와서 싯딤 골짜기에 대리라 **절관주** 사 55:12, 암 9:13

(을 3:19)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을 3:20)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을 3:21)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흘림 당한 것을 갚아 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 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본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에 있을 무시무시한 심판을 예고하시며, 동시에 회개하고 당신께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있을 구원과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멸망 이전부터 바벨론 포로 시기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전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심판과 구원, 그리고 회복을 예언하셨습니다.

그중 요엘은 BC 835 년경 남 유다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북 이스라엘이 앓수르에게 멸망한 것이 BC 722 년이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것이 BC 586 년이니 요엘 선지자는 북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훨씬 전 예언 활동을 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전에 이같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자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향해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여호와의 날 임하게 될 이스라엘의 회복과 만국에 대한 심판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을 3:1) 보라 그 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 때에 남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여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이미 기정 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영원히 그곳에 포로로 남지 아니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나아가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간이 구원받고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항상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에 회복이 임할 때, 만국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을 3:2)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 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을 3:3)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 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여호사밧 골짜기는 심판의 골짜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심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국을 데리고 심판의 골짜기에 가셔서 일차적으로 그들을 심문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만국의 죄는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 버리고 하나님의 땅을 나눈 일과 인신매매를 한 일 등입니다.

만국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이제껏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으나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의 대적자로 규정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국 중 특별히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던 두로 시돈 블레셋을 언급하시며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을 3:4)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을 3:5)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기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을 3:6)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을 3:7)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을 3:8)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들이 당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 행한 악행을 보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람 왕 (BC 853-841 년) 당시 예루살렘과 유다를 약탈하여 성전 기물들과  
이스라엘의 재물들을 가져갔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헬라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아 넘겨 약속의 땅으로부터  
격리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어느 곳에 가 있는지 돌아오게 할 것이시고 두로와 시돈에게 죄값을 물어  
보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후에 시돈 사람들은 BC 345 년 바벨론의 아닥시사다 3 세에 의해 포로로 잡혀갔고, 두로 사람들은 BC 332 년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악인을 그들의 행실대로 보응하시고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국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여호사밧 골짜기 곧 심판의 골짜기로 소집하십니다.

(을 3:9)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아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을 3:10)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을 3:11)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을 3:12)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을 3:13)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로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귀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 그날은 누구도 예외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심판의 골짜기로 가야한다는 사실과 그날 하나님의 추수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는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추수 광경입니다.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은 추수 때가 될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셔서 가라지는 불태우고 알곡은 곳간으로 들이실 것입니다.

그날은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그분의 은혜로 의인이 된 자에게는 구원의 날,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마 13:36)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아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마 13:37)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마 13:38)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마 13:39)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마 13:40)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마 13:41)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마 13:42)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 13:43) 그 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심판이 임박함과 함께 그때에 일어날 현상들을 말씀하십니다.

(을 3:14)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을 3:15)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심판 날, 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그 빛을 거두니 세상이 온통 캄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날 백성들이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을 3:16)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을 3:17)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궁극적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말합니다.

그날,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입니다.

(계 21:1)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계 21:2)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계 21: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계 21: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냐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완전한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불완전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됩니다.

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그 영원한 복에 결코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그날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실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무한하게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묘사입니다.

(을 3:18) 그 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와 성전에서 샘이 흘러  
나와서 씻김 골짜기에 대리라

끓겨졌던 단 포도주가 풍성하게 생산되는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은 진멸될 것이나, 유다 예루살렘은 영원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애굽은 사탄을 상징하고, 유다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을 3:19)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을 3:20)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을 3:21)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흘림 당한 것을 갚아 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 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당한 것을 갚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갚아 준다'는 복수하다, 원수를 갚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속자가 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구속으로 인한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일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이루어졌으며 나아가 그날,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인 새 예루살렘에서 충만하게 구현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저의 눈가에 하염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넘치는 평강과 환희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아, 얼마나 기다려 왔던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진정 공의이시고 사랑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무릎을 꿇습니다.  
택하여 구속해 주시고 견인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오직 구속자되신 주님만을 믿고 사랑하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그분께 부끄러운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